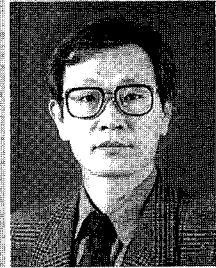


민통련의 감격과 아쉬움



현 전국농민연대 상임대표 정재돈

1965년생 전국농민운동연합 정책실장, 전국농민총연맹 창립 초대 사무차장 및 조직국장, 대구경북민통련 초대 상임위원, 전민련 상임정책위원, 현 한국가톨릭농민회 제18대 전국회장, 민주화해방국민협의회 공동의장

홀어져 있던 민주통일운동의 동지, 선후배가
하나의 조직으로 뭉쳤다는 감격이 얼마나 컸던가!
지역 모임을 통해 비슷한 처지에서 지역운동을
개척해가는 경험과 동지애를 나누며 새운 밤이 며칠이던가!
우리가 얼마나 민통련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가!

내가 겪은 민통련의 감격

1984년은 남한 전역에 큰 수해를 입어 북한에서 쌀과 옷감 등 수해물자지원이 있기도 했고 약간의 기반적인 유화조치로 복학, 해금조치가 있었으나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은 각종 법과 강제로 철저히 부정되었던 시기였다. 집시법, 언론기본법, 노동악법 등을 통해 출판물에 대한 검열, 압수, 왜곡 보도, 전경과 의무경찰의 가두검문과 폭력, 노동·농민운동에 대한 철저한 탄압 등이 국민들의 가슴을 조이게 했다. 그러나 정당한 민주적 재권리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각계각층의 투쟁과 조직을 바탕으로 민중민주운동세력들이 활동범위를 넓혀가면서 폭넓은 연대를 구축하여 1984년 6월 29일 단체중심으로 민중민주운동협의회가 창립

되었고, 또 부문과 지역의 민주통일인사들을 중심으로 1984년 10월 16일 민주통일국민회의가 창립되었다. 이듬해인 1985년 3월 29일에 두 단체가 통합하여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을 창립함으로써 명실공히 부문과 지역을 포괄한 연합운동체로서 1987년 6월항쟁의 봉우리까지 민주화를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이끌어내었고, 이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으로 이어지는 전선체의 모태역할을 하게 되었다.

당시 나는 민청학련사건 관련 복역 후 대구경북지역의 가톨릭농민회 실무자로 일하다가 1985년 봄에 전국본부 교육부장으로 가게 되어, 민주통일국민회의 대구경북지부를 결성하는 일과 민통련 회의와 투쟁에 직간접으로 참여하였다. 민청학련사건으로 많은 희생이 있었던 대구경북지역의 80년대 중반 사회운동은 학생운동이 활기를 찾은 것과는 달리 미약하였다. 양서조합마저 문을 닫고 구속학생이나 민족민주세력은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었으며 진보적 대중단체라고는 가톨릭농민회와 엠네스티 한국지부가 고작이었다. 그래서 당시 대구 택시파업투쟁도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했다. 사정이 그러하여 대구경북지역운동의 새로운 전진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할 조직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나는 1년반 동안 대구에 방도 얻지 않고 낮에는 가농활동으로, 밤에는 학생운동 선후배들을 찾아 얻어 자는 생활을 하던 터라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 물론 가장 밀접하게 자주 만나 얘기하고 같이 자던 사람은 같은 민청학련 사건의 이강철 선배와 가농 간사였던 함중호였다.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위한 전국적 연대에도 기여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조직형태를 모색하던 끝에, 민주통일국민회의 지부를 건설하기로 하였다. 대구에서 처음으로 공개조직을 하는 터라 명망있는 어른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했기에 나는 주로 어른들을 조직에 모시는 일을 맡았다. 박병기 신부, 전주원 신부, 허연구 신부, 류강하 신부, 김재문 신부, 유연창 목사, 도영화 장로 등을 여러 차례 밤늦도록 찾아뵙고, 또 지원차 내려오신 이창복 사무총장과 함께 굳히기를 할 때는 얼마나 가슴 뜨겁게 흥분되었던지 모른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각계 민주인사 150여명이 참여하여 1985년 1월 31일, 드디어 결성식을 하게 되었다.

서울에서 문익환 의장과 이창복 사무총장이 오셨고 84년말부터 시작된 지역모임 덕에 부산경남 지역분들도 함께 참석했었다. 경북지부 의장에 박병기 신부, 부의장에 유연창 목사와 류강하 신부가 선임되고, 사무국장은 이강철 선배가 맡았다. 나는 상임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상근실무자로는 남영주, 권형우, 권오국 등이 함께 하였다. 나중에 내가 떠난 뒤에는 이강철 선배가 의장을 맡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가톨릭농민회 본부에서 일하게 되면서 대전 농민회관에서 민통련과 관련된 많은 회의들이 있어 나도 간간히 참석했었다. 분도회관 농성 때 가기도 했고 기독교회관에서 소몰이시위 및 소값피해진상보고대회를 민통련이 주최하기도 하여 참석하기도 했다. 민중생활위원장 이부영 선배가 음성 소몰이시위에 참석하여 '서울에서는 맨날 깨지는 싸움만 보다가 농민들이 경운기에 소 끌고 전경저지선을 돌파하는 것을 보니 신이 난다.' 고 서로 격려를 받기도 했었다. 86년에는 4·19기념식을 수유리 묘지에서 하게 되어 민통련 상임위원장 임채정 선배와 함께 가는데 택시 안에서 갑자기 조사(弔詞)를 하라고 해서 가슴조이다 얼떨결에 대중연설을 처음 해 본 기억도 생생하다. 87년 6월항쟁 때는 현수막을 찢자마자 잡혀가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다 나와 6·29 항복선언을 맞게 되었다.

좌우지간 그 당시에는 흩어져 있던 민주통일운동의 동지, 선후배가 하나의 조직으로 뭉쳤다는 감격이 얼마나 컸던가! 지역 모임을 통해 비슷한 처지에서 지역 운동을 개척해가는 경험과 동지애를 나누며 새운 밤이 며칠이던가! 우리가 얼마나 민통련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가! 민족민주운동의 구심과 뜨거운 동지에는 그 후의 수많은 회의와 투쟁 속에서 더욱 더 드높은 사기로 발전해가지 않았던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나 6월항쟁의 감동도 민통련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던가!

6월 민주대항쟁은 농민운동 대중화의 발판

1987년 6월 10일, 국민대회에서부터 6월 26일 국민대회, 6월 29일 전두환의 항복선언(대통령직선제개헌 수용)을 받아내기까지, 바쁜 농사철임에도 불구하고 살인농정철폐와 민주헌법쟁취를 위해 가톨릭농민회 회원들은 조직적으로 참여하여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쳤다. 농민회원들이 춘천·홍천·원주·수원·천안·대전·서천·전주·정읍·광주·무안·보성·나주·안동·상주·대구·마산·진주·거창 등지에서 연일 주체적으로 가두시위를 이끌어 갔고, 춘천·원주·대전·안동·마산에서는 교구연합회장 및 임원들이 경찰에 연행되거나 구류를 받았다. 탄압이 심한 곳에선 현수막을 찢자마자 지도부가 연행되어도 군집한 사람들 중 하나가 손수건을 흔들며 구호만 외치면 집회가 되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많이 불렀지만 지방에서는 함께 부를 노래가 없어 애국가라도 불렀다.

6월 민주대항쟁은 광주민중항쟁 이래 노골화된 군사독재와 민족민주세력간의 전면적 투쟁전선을 전국적으로 각계각층 속으로 확산시킨 결과, 지배세력이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

의 힘에 밀려 전술적으로 후퇴함으로써 민족민주운동이 부분적 승리를 거둔 것이었다.

당시 민족민주운동(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등)은 야당을 비롯한 중간층을 포괄하는 군사 독재타도 범국민연합전선으로서의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결성을 통해 국민적 대표성을 획득하고, 대중적 행동지침을 통해 군사독재의 폭력성과 잇따른 무리수(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4·13 호헌조치 등)를 신속히 포착하여 독재타도라는 국민적 계기로 발전시켜 갈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운동역량이 뒤떨어진 지방 중소도시까지 투쟁에 참가하여 전국 동시다발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톨릭농민회의 조직 기반과 대중투쟁 속에서 훈련된 농민 활동가들 때문이었다. 1985년 22개 군에서 일어났던 소몰이투쟁과 1986년 9월 2일 양담배 시판 날 36개 군이 동시다발적으로 봉기했던 미국농축산물수입저지투쟁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대중투쟁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던 것이다.

당시 가톨릭농민회는 민통련의 주요 참가단체로서 국민운동본부 조직국장과 대통령후보 단일화국민협의회 공동대표와 사무국장 등에 사람을 파견하고 조직적으로 농민생존권투쟁과 민주화투쟁을 결합하여 전개하였다. 그런 속에서 60여개의 시군단위 중소도시에서 농민들이 국민운동지부의 결성과 투쟁을 주도해 감으로써 지역운동의 중심적 정치역량을 강화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 것은 전체 민족민주운동 안에서 농민운동의 지위와 역할을 드높힌 것이었다.

6월항쟁 이후 7,8,9월 노동자대투쟁과 조직화의 진전이 이뤄지고 농민대중도 투쟁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으나, 아직 민중운동 역량이 상대적으로 성숙되어 있지 못했고 투쟁을 조직적으로 지도하지 못하여 1987년 대통령선거에서 양 김과 중간층의 분열로 인한 패배를 초래하였다. '죽 썩서 개 준다'는 꼴로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주화의 물결은 도도하게 흘러 왔으며 6월항쟁은 그 물꼬를 튼 셈이다. 무엇보다도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등 민중운동이 크게 성장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특히 87년 대선시기부터 89년 2월 13일 여의도 농민항쟁에 이르기까지 폭발적으로 펼쳐진 수세거부 및 폐지투쟁과 고추수입으로 인한 가격폭락에 항거한 고추투쟁은 이전의 농민투쟁과는 성격과 내용이 다른 대중투쟁으로 발전한 것이었다. 소수의 특별히 각성된 선진적인 농민들끼리 하던 선도투쟁을 넘어 보통 농민들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너도 나도 투쟁에 나선 것이었다. 이른바 농민운동의 대중화와 질적 도약, 바로 여기에 힘입어 농민운동의 통일과 하나의 전국적 농민대중조직이 요구된

것이였다. 이에 가톨릭농민회, 기독교농민회, 자주적 농민회들이 '전국농민운동연합'을 결성하고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당시 나는 전국농민운동연합 정책실장으로서 전민련 상임정책위원)에 참여하는 한편, 자기의 군조직을 군농민회로 확대개편하는 일을 과도적으로 수행하고, 마침내 이들 군농민회들이 모여 '전국농민회총연맹'을 창립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가농은 전농과 창조적 분화과정을 겪으며 또는 이중멤버십을 갖고, 오늘날의 생명·공동체운동을 개척하며 한살림운동·우리밀살리기운동·우리농촌살리기운동·귀농운동 등 생활실천 대안운동의 지평을 넓혀가게 되었다.

민통련의 아쉬움

군부정권 아래서는 사회과정 전체가 강권적 폭력행사를 앞세우는 국가에 의해 전면적으로 통제되기 때문에 정치적 민주주의의 획득 없이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어떠한 운동도 합법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반독재민주화투쟁이 사회운동의 중심을 이루게 되고 모든 운동역량이 그러한 민주화투쟁 전개에 동원되었다. 이 과정에서 군부세력을 정점으로 하는 파쇼적 지배블럭과 이에 맞서는 범민주연합전선이 형성되는데, 1987년만 하더라도 폭발하는 민중운동이 아직 조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지만 6월항쟁까지의 민통련의 역할은 자랑스럽고 눈부신 것이었다. 그러나 6·29 이후의 민통련은 아쉽고 아쉬움이 많았다. 민통련은 6·29 이후 투쟁적으로 진출하는 민중과의 접촉을 넓히고 새로이 조직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 당시 설정했던 민주화의 목표, 그리고 민주화에 대한 이해 수준이 서로 다른 것은 아니었나 싶기도 하다. 민주화의 문제를 국내정치 지형에서만 사고한다든지 제도정치 수준으로 안이하게 보는 시각이 있지 않았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계통에서도 문익환, 계훈제, 백기완 세 분을 '문계백'이라 부를 정도로 대표 세 분이 같이 움직이는 일이 많았는데, 문익환 목사 출감 후 문재린 목사 묘에 문계백 세 분이 모여 대선방침을 놓고 우리가 갈라지면 안 된다고 서로 맹세까지 했었다고 했다. 그러나 10월 12일 민통련중앙위원회가 후보단일화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성급하게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특정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결정한 게 아닌가, 그래서 민중·민주운동의 도덕적 순결성을 해치고 활동공간을 스스로 축소시키고 분열을 초래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국전쟁 후 처음으로 자랑스럽게 뭉쳤던 민중·민주세력이 그렇게 민통련 깃발

을 내리게 된 것이 너무나 이 쉽고 가슴 아팠다. 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확대된 공간에 진출하는 문제도 전체 역량의 합의를 거쳐서 공동으로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특정 계파가 선점하려는 경향을 보인 점도 마찬가지다. 만약 민통련이 분열되지 않고, 그 훌륭한 운동가들이 제도정치로 옮겨가지 않고, 민통련 깃발아래 남아서 성장하는 민중과 더불어 전략 단위 민족민주전선을 강화하고 역량의 재생산을 도모하며, 분견대로서 합법정당·공간에 역량을 배치하고 그 통제 속에 정치세력화가 시도되었다면 지금보다는 앞서 갈 수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나는 지금도, 아니 자주 부질없는 상상을 해보곤 한다.